

---

## 기획논문 2

---



## 의도와 의미

‘예술작품의 해석과 예술가의 의도’라는 주제 하에 기획된 논문은 모두 4편으로 이번 호에 실린 세 편과 지난 호인 제74권 제3호에 실린 이 해완의 논문을 포함한다. 이들은 모두 미학의 전통적인 주제이자 영미 현대 미학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주제인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있어 의도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논의의 중심으로 다루면서 이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해석의 문제 전체를 본다면 의도와 관련된 쟁점은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문·사·철을 아우르는 모든 인문학 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석이라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인문학적 영역은 매우 넓다. 그중에서 메타 작업으로서의 철학적 미학의 관심, 특히 분석미학이라고 불리는 현대 영미 미학의 작업은 해석 및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평 활동의 본질을 묻는 것에 모아진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작품의 최적의 해석은 단 하나뿐인가 아니면 똑같이 최적인 해석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가? 만일 복수의 해석이 각각 최적임에도 양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주의를 채택하여야 할까? 해석적 진술에 대해서는 아예 참이나 거짓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가능할까?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어

떤 존재인가? 혹시라도 작품이란 해석이 부여되어야만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른 해석은 다른 작품으로 귀결된다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은 기본적으로 형이상학 및 인식론의 주제들로, 일원론과 다원론,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실재론과 반실재론에 관한 철학적 입장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의도의 문제는 ‘무엇이 해석적 진술이 참임을 확정해 줄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상정되었을 때 그 답의 후보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작가의 의도가 바로 작품의 의미를 확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생각은,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작품의 경우 우리는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는지 묻곤 한다는 점만 보아도,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작가의 의도이기만 하면 ‘빨강’도 ‘파랑’을 의미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에 가깝다. 즉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일견 상식적 입장이, ‘언표된 것의 의미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언표되든 결국은 발화자가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면 우리는 이를 반직관적인 주장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현대 분석 미학의 전개 과정도 의도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비어즐리를 포함한 1940년대의 모더니즘적 신비평의 주창자들은 작품 외부에 존재하는 의도를 가져와 작품을 해석하려는 시도에 ‘오류’라는 낙인을 찍히기도 하였다. 의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또 하나의 흐름은 해석의 토대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소위 ‘저자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경향이다. 작품의 고정된 의미의 존재는 물론 고정된 정체성조차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당연히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입장도 거부한다.

그러나 작품의 정체성에 대한 극단적 입장 및 해석의 가능성에 대한 상대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의 범람은 오히려 분석미학자들을 의도주의로 회귀시키는 계기가 되는 듯하다. 1990년대 이후의 많은 이론가들은 오히

려 적극적으로 의도주의를 채택하거나, 최소한 의미의 해석에서 의도는 제거할 수 없는 요소임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때의 의도주의는 앞서 언급된 극단적인 의도주의의 반직관적인 귀결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의도주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실제 의도를 중시하는 전통적 입장에 입각한 절충은 노엘 캐럴과 같은 학자가 지지하는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를 표방하는 반면, 제럴드 레빈슨이 내세우는 ‘가설의도주의’로 명명된 입장은 반의도주의의 직관을 조금 더 중시하는 절충의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간략하게 짚어 본 현대 분석 미학에서 의도와 관련 논쟁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기획에 참여한 저자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이 논쟁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 저자들은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의 집담회 지원을 받은 제127회 미학과 집담회(2016년 9월 22일)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 집담회는 의도와 해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측면도 있었지만, 철학의 영역에서조차도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이 부족한 현실에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논쟁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다양한 시각들이 입각한 지점들을 보여주려는 ‘교육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작용하였고, 그 결과 기대되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집담회에서 의도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오종환이 발표한 원고(당시 미출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제74권 3호에 먼저 실린 이해완의 논문 “온건하지 않거나 의도주의가 아니거나”이다. 이 논문은 의미가 언어적 관습과 발화의 맥락 같은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럴 수 없을 경우는 의미가 애매한 발화로 남는 것이지 발화자의 의도를 쫓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의도주의적 직관에 입각해서, ‘성공한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온건한 의도주의의 절충이 일관된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이 논문에 대한 재반박의 성격을 가지면서 다시 한 번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논증하는 작업이 오종환의 논문 “온건한 실제 의도주의 옹호”에서 이루어진다. 이 논문은 이해완 논문에서 제기된 온건한 의도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증이 오해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반의도주의가 직관적 지지를 얻을 수 없는 부분들과 가설 의도주의가 지니는 문제점까지도 지적함으로써, 온건한 의도주의를 해명하고 그것이 이 논쟁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가설의도주의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윤주한은 “의도주의-비의도주의 논쟁에 대한 하나의 답변: 보완된 가설의도주의”를 통해 좀 더 ‘비의도주의’에 가까운 지점을 자신의 입장이 설 자리로 선정한다. 이 논문은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의 대립을 해석의 본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두 입장의 해석적 이상과 동기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절충 이론이 선호되어야 한다는 기준 하에, 그 가능성을 가설의도주의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이론이 ‘가치최대화’ 이론으로 보완될 경우, 그것이 이 논쟁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절충이라고 주장한다.

윤주한의 논문이 해석의 본성을 시금석으로 삼아 논쟁의 상황을 조망하려 한다면 신현주의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의 재구성: 의도 개념을 중심으로”는 의도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주목하여 논쟁의 쟁점들을 재구성해보려는 시도이다. 위에서 언급된 형이상학적·언어철학적 논의에 비해 다소 소외되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주제가 의도의 실제에 관한 심리철학적 접근이다. 신현주의 논문이 보여주고 있는대로, 의도의 실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은 현재의 논쟁적 상황을 이해하는 신선한 또 하나의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네 편의 논문들은 각각 쟁점들을 제기하고, 나름대로 포기될 수 없다는 직관을 인용하였으며,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조망이 가능한 시각 틀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논문이 지니는 설득

---

력은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이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각자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결국은 언계 될 이론적 균형점이 기대된다. 이는 철학하는 여러 즐거움 중 하나, 즉 다양한 시각들과 논변들이 펼쳐지고 그 과정에서 옥석이 가려지며 새로운 통찰과 합리적 해결책이 도출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해완

